

가정생산 위성계정의 개발 및 적용: 새로운 개념 정립과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ncept and standardized measurement for household production

통계청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사 무 관 박현정**
통계청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주 무 관 홍현정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 수 허경옥***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Trends Analysis Division
Deputy director Park, Hyun-Jung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Research Planning Division
Researcher Hong, Hyunjeong
Dep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Huh, Kyungok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 |
| II. 가정생산과 위성계정의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developed standardized satellite accounts for household production to measure the entire production in Korea using representative Korean data. This study utilized standardized methods for measuring the expenditure and consumption of expendable supplies as an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n household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본 연구는 2012년 통계개발원 상반기 연구보고서(비시장 가계생산위성계정 방법론 고찰과 시산)의 일부를 수정·발췌한 것임.

** 주저자: 박현정(phj88@korea.kr)

*** 교신저자: 허경옥(kohuh@sungshin.ac.kr)

First, the total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in Korea in 2009 turned was 268 trillion won, which would be 10.16% of the GDP, based on using the method of replacement by specialt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housework, while it was 356 trillion won, which would be 13.5% of the GDP (2,636 trillion won), based on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Second, the economic value of labor invested in household production was 220 trillion won when using the data from 12 main corresponding wages in the market, while it was 203 trillion won when using the method of total replacement, which used the wages of housekeepers, and 290 trillion won when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in measuring the value of housework labor.

Third, in estimating the proportion by section in terms of the total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the portion of labor in household production was measured from 76% to 82%, depending on the methods used,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se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use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centered work.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expenditure on and consumption of expendable supplies, as one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s 63 trillion won, which is 17.7%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in measuring the labor of housework) of household production. Also, the value of capital goods, as the other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s 2.3 trillion won, which is 0.9%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of household production.

In conclusion, as an element of household production, housework labor was higher in household production than expenditures on expendables, especially for cooking, cleaning, and caring for children. In the future, people should be cautious about estimating that the amount of household work could be reduced, as women's labor in the market and the household work produced by the market will increase.

Key Words : Household Production(가정생산), Satellite Account of Household Production(가정생산위성계정), Developing Satellite Account of Household Production(가정생산위성계정개발)

I. 서론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기록하게 되는데 이 통계체계를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이라고 부른다. 국민계정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실물자산과 노동을 결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얼마만

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으며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생산자산에 투자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국민계정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시장활동에 기초한 생산과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의 가정생산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사노동에 의한 생산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가정생산을 생산의 범위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60년대 중반 Becker, Ironmonger, Lancaster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가계경제학파가 가계를 생산의 주체로 간주하여 가사노동을 가정생산물로 정의하고 가정생산의 가정생산모델(household production model)을 도입되면서 가정생산의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었다(허경옥, 2003). 특히 OECD에서는 경제활동의 전통적인 평가영역인 GDP를 보완하여 가정생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정을 개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OECD, 2000).

OECD에서는 비시장서비스 부문에 대한 가정생산의 가치평가 작업을 통해 국가간 비교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생산을 위성계정 형태로 개발·보고 하고 있고 각 국가들의 것을 비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전업주부 등이 주로 생산한 가정생산물의 가치평가를 가정생산 부분을 위성계정(SNA: Satellite National Account)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김태홍, 2001). 우리나라에서 1999년 처음 생활시간조사가 조사된 이후 가정생산에 대한 화폐적 가치평가와 가정생산위성계정 개발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가정생산 위성계정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국의 가정생산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DP에 포함되지 않은 비시장부문의 가정생산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세계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가정생산 위성계정개발 방법을 최대한 도입하여 표준화된 위성계정개발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가정생산에 투입된 중간소비재 투입규모와 내구소비재의 투입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생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정생산위성계정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고 향후 표준화된 위성계정개발의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생산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예: 김태홍, 2001; 문숙재, 1991; 문숙재, 성지미, 정영금, 윤소영, 2001; 문숙재, 윤소영, 2001; 권태희, 2006)는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최근 자료를 사용한 표준화된 가정생산의 가치평가 및 위성계정개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연구로서 권태희(2006)는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한 결과 연간 136조원으로 나타났고 이 산출액은 GDP의 약 18%, 여성 1인당 연간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는 827만원, 월평균 69만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권태희(2006)는 여성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평가방법의 객관성은 진전되었으나, 정확도와 정밀도 및 현실적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투입비용의 산출과정, 중간재 투입비용, 특히 자본재/내구재와 중간소비재 투입비용 등의 산출에 있어 세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교하고 객관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며 일부 선행연구(예: 김태홍, 2001; 문숙재, 1991; 허경옥, 2004a)가 가사노동가치평가에서 기회비용만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문가대체법과 기회비용법을 모두 적용하고자 한다. 게다가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들, 예를 들면, 국가간 가정생산규모 비교의 어려움, 가정생산의 과대추정 문제, 위성계정개발 과정의 방법상의 이슈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의 시간사용의 변화, 가정생산의 급속한 시장대체화, 가정생산 가치평가 관련 주요 이슈, 위성계정 개발 방법에 대한 이슈, 한국 및 세계국가들의 가정생산 측정결과 비교상의 이슈,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등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본 연구는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정생산에 투입한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 시간비용의 대리 지표로써 임금자료인 임금고용구조조사, 소비재 투입과 자본재 투입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9년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생산의 투입산출표를 작성하고 가정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함으로써 가정생산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가정생산과 위성계정의 이론적 배경

1. 가정생산의 개념

가정생산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어 왔다. OECD National Accounts(2000)는 가사노동은 가계구성원들 자신의 소비를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무보수 노동을 의미하며, 가정생산은 무보수 가사노동이 시장에서 구매된 소비재(내구재와 비 내구재)와 결합됨으로써 가구원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라고 정의 내렸다. 문숙재(1991), 문숙재, 정순희, 허경옥(2000), 문숙재, 성지미, 정영금, 윤소영(2001)은 가사노동은 가정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하나의 요소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생산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2. 가정생산 위성계정

1993년에 개편된 국민계정체계는 중심체계와 기타 체계로 구분하였고, 중심체계에는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해 주는 계정으로 구성하고, 기타 체계는 위성계정과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로 구성하였다. 위성계정은 중심체계인 국민계정을 보완하는 부속계정으로서 중심계정의 측면에

서 관련성을 가지나 별개로 구분되는 위성(satellite)과 같아 위성계정이라 부른다.

김태홍(2001)은 위성계정의 주된 역할을 첫째, 특별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둘째, 국민소득계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보완하는 개념 혹은 대체적인 개념을 활용, 셋째, 사람의 활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다룸, 넷째, 적절한 지표나 총량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가능, 다섯째, 실물적인 자료와 화폐계정체제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 요약한 바 있다.

3. 가정생산 위성계정에서의 가정생산의 범위와 기능별 분류

모든 시장생산은 국민계정의 생산부문에 포함되지만, 비시장생산의 경우는 일부에 한하여 국민계정 생산부문에 포함된다. 가정생산 중에서도 상품은 가구내 최종소비로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반면, 가정생산 중 서비스 부문은 자가 소유 주거 서비스인 귀속임료만 포함되고, 그 외 서비스는 제외되고 있다(문숙재, 윤소영, 2001). 다시 말해, 가정생산위성계정에서 다루는 생산의 범위는 이미 국민계정의 생산에 포함되는 자가소비 농업 생산물이나, 자가 소유주거 서비스, 자원봉사를 통한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 중 기타 자가소비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정생산 위성계정을 국민총생산(GDP)에 통합할 때에는 이러한 활동이 이중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생산의 추정치가 상향편향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Ironmonger, 1996, 2000; OECD, 2000).

본 연구에서 가정생산 위성계정에 포함하는 가정생산의 활동영역은 의식주 관련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가정생산과 관련된 이동활동이다. 가정생산 위성계정에 포함하지 않는 부문은

시장생산(유급노동), 개인유지, 직장노동(유급노동), 학습, 가계 비생산 관련 이동을 포함한다. 가정의 활동 중 가정생산과 가정비생산의 구분은 제3자 기준(third party criterion)을 따르며 공통적으로 사적 개발 활동은 제외한다(Goldschmidt-Clermont & Pagnossin-Aligisakis, 1999, Eurostat, 2003). 자원봉사 분야의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세계 각국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정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는 크게 가사노동투입(시간), 중간소비재 투입, 자본재투입 비용으로 구분한다(Ironmonger, 2003; 허경욱, 1997,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 활동분류는 의·식·주 활동, 가정경영,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 이동, 개인, 유지, 교육, 노동, 교제 및 여가 등으로 구분한다. 중간소비재 및 내구재 등 소비지출의 경우 통계청의 소비지출 분류(UN의 사용 목적별 분류인 COICOP)를 따른다.

이때 가정에서 행해진 어떤 활동이 여러 활동에 투입된 경우 적절한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영역에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동시간은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가족 보살핌을 위한 이동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위한 시간이므로 배분하여 활용한다. 한편, 중간소비재 투입과 자본재/내구재 투입이 여러 활동에 투입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할당하였다. 주택이라는 자본재의 경우 자녀양육, 음식 만들기, 청소 등 매우 많은 활동에 사용되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여러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할당(배분)하게 된다.

III.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 방법

1. 가정생산에의 노동투입 부문의 측정방법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의 이론적 접근
가정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생산물 접근법(output approach)과

비용투입물 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구분된다(문숙재, 1993). 생산물 접근법은 가정산출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측정 후 생산비용을 공제시켜 가정생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Fitzgerald, Swenson, & Wicks, 1996). 투입비용 접근법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자본재 투입비용과 중간재 투입비용을 합한 것으로 측정한다.

생산물(산출물) 접근법은 가계에서 생산된 것과 같은 생산물 품목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가정생산물의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이다. 즉 가정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동일한 양과 품질에 대응하는 시장가격이 가정생산물의 가치로 인정된다. 생산물접근법은 국민계정 산출방법과 일치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가정산출물의 정의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고, 즉 적절한 시장가격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정생산물의 가치평가가 실제 계산과정에서 어렵다. 가정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물접근법으로 측정한 선행연구가 드물고 자연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실질적 노후가 부족한 편이다(Eurostat, 2003, OECD, 2000) 영국 통계청에서 가계위성계정개발을 위해 생산물접근법을 시도한 이후 생산물접근법을 이용한 후속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Eurostat, 2003).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 사용자료를 사용한 비용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접근법은 가사노동의 비용, 자본재 및 중간재 투입비용을 산출하여 총 가정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시간 사용자료 자료와 임금자료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고, 몇 개의 다른 국가통계자료를 추가로 사용한다(Goldschmidt-Clermont, 1999). 노동투입 비용의 가치측정은 가사노동시간에 임금을(기회비용법 적용시)을 곱하면 되므로 생산물접근법에 비해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산의 가치가 시간당 임금에 크게 영향받는 단점이 있다.

2) 비용투입접근법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

비용투입접근법을 노동투입 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 임금률의 적용방식에 따라 시장대체법(market replacement)과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대체법은 가사노동투입과 유사한 시장노동의 비용을 측정하며 기회비용법은 가사노동 대신 시장에서 유급 노동을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임금 즉 기회비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OECD, 2000). 그런데 가사노동의 시장대체 또는 기회비용 적용 과정에서 어떤 임금을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산출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가정생산물의 종합적 GDP 비중이 19%(종합적 대체비용법: 시간당 가정부 임금), 62%(기회비용법: 시간당 평균임금)로 측정되어 두 방법 간에 차이가 43%나 됨을 알 수 있다(허경옥, 2005, 2009). 같은 시장대체법을 사용할 경우라도 가사노동의 시장임금을 과출부와 같은 종합대체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가사노동 영역별 전문가 직업의 임금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차이가 있게 된다. 권태희(2006)의 연구결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활용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대해 종합대체법인 가사도우미 임금으로 대체한 경우는 GDP의 67.7%, 전문가 대체비용으로 측정한 경우는 84.7%로 나타났다.

(1) 시장대체법(market replacement)

시장대체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시장에서의 가정생산에 투입된 요소들에 대해 동일한 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가사노동과 대응되는 시장에서의 노동, 즉 가사노동 관련 직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종합대체법(generalist market replacement)과 전문가대체법으로(specialist market replacement) 구분할 수 있다. 종합대체법은 다양한 가사노동을 한명의 직업인(예: 과출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가사도우미의 임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인 반면, 전문가대체법은 다양한 가사노동 활동별로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임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종합대체방법 즉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적용할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전문가대체법은 가정생산 활동 세부영역별 활동시간과 임금 정보가 필요하므로 종합대체방법에 비해 산출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어떤 가사노동 활동은 시장대체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전문가의 임금을 적용하므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는(National Research Council)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으로 비시장부문과 시장 전문가의 기술과 노력의 차이를 조정한 전문가(배관공, 요리사 또는 회계사 등)의 시장임금을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Landefeld, McCulla (2000)은 비전문가의 가정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가사노동활동의 시간당 임금을 전문가 임금의 75%로 조정하여 적용한 바 있다.

(2)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가정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형태로 투입될 경우의 임금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동일한 질의 가사노동에 대해 가사노동수행자의 학력,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가정생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Hirway, 2003). 한편, 가사노동은 동시에 여러 개의 가사노동이 수행되기도 하는데 기회비용법을 활용할 경우 가사노동의 중복수행, 가사노동 수행에서의 효율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가정생산의 가치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할 수 (Hirway, 2003).

결국 기회비용법으로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할 경우 어떤 임금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가사노동의 가치가 매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즉 어떤 임금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연구결과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사용에서 소득세 공제여부, 임금산정에 포함된 노동시간 종류, 정규(표준, 법정) 근로시간 또는 실제 근로 시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OECD(2011)는 세금공제후의 임금자료를 적용한 대체비용법을 통해 가정생산의 가치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가정생산의 최저 값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기회비용으로 산출되는 최대값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을 변수 사용시 총임금 또는 순임금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국가마다 복지시스템¹⁾의 상황이 다르므로 총임금과 순임금 선택에 있어서 일치된 의견은 없다. 1993년 SNA에서는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하기 이전의 총임금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가정생산에의 중간소비재 투입 부분의 측정방법

가정생산을 위해 재료 등 중간소비재 지출이 발생된다. 중간소비재란 가정생산에서 최종생산물 산출을 위해 투입되고 사용된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빵은 가정생산의 최종생산물로서 밀가루, 설탕 등의 재료가 투입되는데 이때의 재료를 중간소비재로 간주한다. 이때 또 다른 투입요소로써 빵을 생산하는 부엌 등의 작업공간 그리고 오븐 등의 내구재가 투입된다. 시장에서 빵을 생산할 경우 기업이 소유한 오븐과 작업공간을 고정자산으로 간주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한 작업공간은 자본재로 오븐은 내구재로 가정생산의 투입 요소로 간주한다. 세계 각국의 문화, 생활양식, 가정생산에 대한 습관 등에 따라 어떤 재료의 소비지출이 중간소비

재로 간주되기도 하고, 최종소비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지출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도 있으며 그 배분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어떤 특정 제품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즉 거의 완전히 준비된 음식물인 경우 이 제품은 중간소비재라기 보다는 최종소비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산의 중간소비 투입비를 산출하기 위해 Eurostat(2003) 매뉴얼과 UN의 사용목적별 분류(COICOP)에 따른 개별 소비지출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9년 기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12대 사용목적별 지출 분류체계에 따라 가계조사 세부항목을 중간소비, 최종소비, 가계자본으로 구분한 후 중간소비지출액을 가정생산 관련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 중간소비재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3. 가정생산에의 자본재/내구재 투입 부분의 측정방법

가정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재/내구재 투입비용을 가정생산의 투입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OECD, 2000). 보통 주택이나 자동차는 가정생산을 위한 자본재로 간주하는 반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은 내구재로 간주하며 이들 두 종류는 가사노동 투입시간을 줄여주는 대체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이다. 이때 자본재와 내구재는 가계의 고정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Douthitt, 1996, 2003).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가계의 내구재 구입을 최종소비지출로 분류하여 생산부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가정생산 위성계정에서는 내구재 소비지출을 가정생산을 위한 고정자산(본) 투입요소 즉 가정생산의 투입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1)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부담금이 임금의 절반이 되기도 한다.

이때, 자본재/내구재 소모분이란 가정생산을 위한 자본재/내구재가 일정기간 동안 가정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감모, 진부화, 일상적인 손실 등에 대한 가치 즉 자본재/내구재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가정생산의 투입비용으로 감안해야 한다.

1) 자본재/내구재 지출 측정방법

가정생산에 투입된 자본재/내구재 지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계동향 조사항목 중 가계자본재/내구재의 지출액수로 측정한다. 특히, 자동차 등의 일부 가계의 자본재는 가정생산이 아닌 통근이나 여가활동에도 사용되므로 가정생산에의 자본투입비용으로써 과대산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해야 한다(Douthitt, 1994, Eisner, 1989). 보통 가계내구재로 분류된 항목의 지출이 가정생산 외에 다른 활동에도 사용된 경우 시간투입량에 비례하여 가정생산에 사용된 부분만 가정생산에의 내구재 투입비용으로 간주해야 이중계산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rostat(2003)에서 제시한 가계내구재의 가정생산에의 배분비율을 도입하였다. 내구재는 중간투입요소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재로도 사용 가능하다. <표 1>의 분류에 제시된 내구재의 대부분은 가정생산을 위한 자본재 지출비용으로서 여러 가정생활활동에 할당하였다. <표 1>에서 오락 및 문화, 기타 본문에 자본재/내구재투입은 0으로 가계자본재가 오락문화 활동에서는 최종소비에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써 수건은 주거/주택관리에 48.9% 할당되고 가족돌봄에 51.1%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본재/내구재소모비용 측정방법

가정생산에 투입된 자동차, 주택 등 자본재와 냉장고, 세탁기, 조리기기 등 내구재 소모분에 대한 측정은 감가모형을 적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 아직까지 가정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재/내구재의 소모분에 대한 측정방법 및 이론적 근거, 선행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의 현재가치 감소분으로 파악하며,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 영구재고법(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OECD(1995, 2011)는 자본재/내구재 측정 지침에서 자본소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연도별로 내구재 보유현황 및 구입시점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내구재 보유현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이 통계자료의 수집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자본재 소모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내구재의 내용연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UN의 가계위성계정 핸드북에 수록된 Varjonen, Niemi, Hamunen, Paakkonen, Sandstrom, 1999)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내용연수 자료가 일부 품목에서는 Eurostat(2003)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어 국가자산통계와 조달청 기준 내용연수 등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내구재 구입에 대한 정보인 구입연도, 내구재 가격변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정자본소모 산출을 위해 구입시점이 다른 가구도 내구재 지출이 당해 연도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정액법, 정률법을 적용하였다.²⁾

2) 정액법과 정률법 관련 자세한 수식 및 내용은 김종숙(2005) 참조

〈표 1〉 가정생산 영역별 내구재 투입 할당비율: COICOP 분류

(단위: %)

분류	음식준비/ 정리	의류관리	주거/주택관리	가족돌봄	이동
식품 및 비주류	100.0				
의류		100.0			
임대료 및 수도 광열			100.0		
가구, 가구장비 및 유지관리	침구류		100.0		
	수건		48.9	51.1	
	커튼		100.0		
	기타 가정용섬유		100.0		
	가정용 섬유관련서비스		100.0		
	가정용 기기 및 가전서비스	56.8	13.7	29.5	
	식기류, 컵 및 다기			100.0	
	솔, 프라이팬, 냄비	100.0			
	칼 및 수저류	100.0			
	기타 주방용품	100.0			
	건전지	48.5		25.2	26.3
	기타 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100.0			
	세탁용 세제		100.0		
	세탁 · 청소용구		31.7	68.3	
	전구			100.0	
	주방 및 청소용 세제	65.8		34.2	
	살충약품 및 용품			100.0	
	기타 가사소모품	43.4	10.5	22.5	23.6
	식품관련 서비스	100.0			
	가사사용인 급료	43.4	10.5	22.5	23.6
기타 가사서비스	43.4	10.5	22.5	23.6	
교통					100.0
오락 및 문화			100.0		
기타	화재보험		100.0		
	운송 관련 보험 등				100.0

IV.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

1. 가정생산에의 노동투입 산출결과

가정생산에 투입한 노동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임금

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 활동별 하루 평균 투입시간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할애한 활동유형은 수면, 개인관리 등 개인유지 활동에 약 11시간(653분, 45.9%) 가량을 사용하였고, 교제 및 여가에는 4시간 반 이상(271분, 19%), 유급노동

(표 2) 활동영역별 하루 평균 시간사용

(단위: 하루 평균, 분, 1일 =1,424분)

영역	가정생산		분	영역	비가정생산		분
가정관리 90.9분(6.4%)	식	음식준비 및 정리	45.1	개인유지 653분(45.9%)	수면	470	
		의	의류관리		10.9	개인관리	78
	주	청소 및 정리	18.9		식사 및 간식	105	
		주거 관리	4.5	교육	85		
	가정경영	가정경영관련 쇼핑	가정경영	9.9	교육 85분(6.0%)	교육	85
			가정경영	1.4		노동	193
기타가사			0.2	구직활동		1	
가족보살피기 24.6분(1.7%)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14.8	시장노동 195분(13.7%)	일관련 물품구입	1	
		배우자 보살피기	6.5		교제 및 여가 271분(19.0%)	교제활동	46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	1.8			대중매체이용	132
		그외 가족보살피기	0.4			종교활동	11
		그외 가족보살피기	1.1			관람 및 문화	2
스포츠 레저	29						
참여및봉사활동 1.3분(0.1%)	이웃 돕기	참여활동	0.3	여가관련 물품구입	취미	49	
		참여활동	0.4		여가관련 물품구입	2	
		자원봉사	0.6				
가정생산이동 13.4분(0.9%)	가정경영관련 이동	돌보기 관련 이동	8.3	비가정생산이동 90분(6.3%)	인적자원관리이동	23	
		돌보기 관련 이동	4.6		여가관련 이동	25	
		봉사활동 관련 이동	0.5		일 관련 이동	42	
소계	총 가정생산 소요시간		130.2 (9.1%)	소계	총 비가정생산 소요시간		1,294 (90.9%)

에 3시간 이상(195분, 14%)을 사용하는 등 비생산부문에 평균 21시간반 이상(1,294분, 90.9%)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가정생산에 할애한 시간은 130분, 약 2시간 10분 정도로 24시간의 9%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가정생산에 할애된 시간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관리활동(의식주, 가정경영활동)에 약 91분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음식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에 많이 할애되었다. 가족 보살피기활동에는 약 25분이 할애되었는데 그중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에 약 15분이 할애되었다. 가정생산 관련 이동시간은 가정경영을 위한 이동과 돌보기를 위한 이동에 시간투

입이 많았다.

한편, 가정생산에의 노동투입비용, 즉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가치평가를 산출한 결과(년간, 전 국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 3가지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하였는데, 종합대체법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임금으로 측정하였고,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세부 항목별도 총 12개의 대응직업군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식사준비 및 설거지,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등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으며, 재봉 뜨개질은 의복제조 관련 기능종사자를 기준

〈표 3〉 전국가계의 연간 가정생산 영역별 노동투입비용

(단위: 조, %)

가정생산 영역	종합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69.7 (34.4)	69.7 (31.6)	91.1 (31.4)
·의류관리	16.4 (8.1)	16.4 (7.4)	21.6 (7.4)
·주거 및 주택관리	35.5 (17.5)	35.0 (15.9)	48.6 (16.7)
·가정경영	17.7 (8.7)	18.8 (8.5)	27.5 (9.5)
가족돌보기	40.0 (19.8)	55.0 (25.0)	65.7 (22.6)
소계: 5영역 가사노동	139.0 (68.7)	139.8 (63.5)	188.8 (65.0)
참여 및 봉사활동	2.0 (1.1)	2.8 (1.3)	2.7 (1.0)
가정생산 관련 이동	21.0 (10.4)	22.6 (10.3)	33.1 (11.4)
계	202.0 (100)	220.4 (100)	290.5 (100)

참조: 기회비용법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고교 재학생은 산출시 제외시킴.

으로 하였다. 기회비용법의 경우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취업자는 성별,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로 구분해서 해당 임금자료를 사용하였다. 비취업자의 경우 남녀 전체 평균임금(단, 중고교 재학생 및 65세 이상 인구 제외)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대체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한 결과 202조(년간, 전국가계), 전문가대체법으로 산출한 결과 220조, 기회비용법으로 산출한 결과 290조로 나타나 기회비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할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회비용법이 다른 산출방법에 비해 가정생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부합되고 있다. 다만 기회비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사노동의 가치와 비교할 때 미취업자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사노동 투입시간을 가정생산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정생산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가치평가방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대체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할 경우 기회비용법을 사용한 경우 가사노동 가치 산출액수의

69.7%, 전문가대체법의 경우는 기회비용법 산출액수의 75.9%로 나타났다. 권태희(2006)는 종합대체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한 결과 기회비용법의 67.7%,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기회비용법의 84.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권태희(2006)에 비해 전문가대체법 사용 가사노동가치평가결과가 다소 낮게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개별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에서의 대응직업을 현실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에서 전문가대체법을 사용할 경우 가사노동가치평가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보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영역별로는 가사노동투입의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 가족돌보기, 주거 및 주택관리, 이동, 가정경영(쇼핑), 의류관리, 참여 및 봉사활동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생산에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별 노동의 가치산출은 기회비용법과 전문가대체법의 구성비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전문가대체의 가족돌보기 영역은 교육전문가 및 관련 직종의 임금이 적용되어 구성비가 높게 산출되었다. 가정생산 영역별로 노동투입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관리 영역의 비용이

〈표 4〉 가정생산 영역별 월 평균 가구당 중간소비재 지출액

(단위:원,%)

구분	음식준비/정리	의류관리	주거/주택관리	가족돌봄	이동	합계
식품지출	152,874	0	0	0	0	152,874 (49.3)
의류지출	0	287	0	0	0	287 (0.1)
임대료 및 수도광열비	0	0	103,491	0	0	103,491 (33.3)
가구/가구유지 지출	14,055	6,755	12,600	2,972	0	36,381 (11.7)
교통비	0	0	0	0	13,915	13,915 (4.5)
오락및문화지출	0	0	2,347	0	0	2,347 (0.8)
기타	0	0	384	0	660	1,044 (0.3)
계	166,929 (53.8)	7,042 (2.3)	118,823 (38.3)	2,972 (1.0)	14,575 (4.7)	310,341 (100.0)
연간 수치	2,003,148	84,505	1,425,871	35,661	174,901	3,724,086
우리나라전체가구 (백만원)	33,887,182	1,429,566	24,121,408	603,281	2,958,799	63,000,237

참조: 2009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6,916,966 가구임(2007년 장래가구추계 결과).

64%~69% 내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가족 돌보기 25%~29%, 가정생산이동 10%~11%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은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사노동 투입 중

가정관리영역별로 구분하여 투입비용(경제적 가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가 대략 61조에서 71조 사이(31.4%~34.4%), 주거 및 주택관리가 35조에서 48조 사이(15.9%~17.5%), 가정경영(쇼핑포함) 생산가치는 17조에서 27조 사이(18.8%~17.7%) 순서로 나타났다.

2. 가정생산에의 중간소비재 투입비용 산출 결과

가정생산에 사용된 중간소비재 투입비용즉 가정생산에 투입된 각종 재료나 제품구입을 위한 지출액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식품, 의류, 수도광열비, 가구, 가구장비 및 유지관리, 주거 및 주택관리 분야 등 중간재 지출을 가정생산 영역별로 구분하여 할당하여 산출

하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산에 투입된 중간소비지출액수는 연평균 약 372만원이었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환산한 결과는 약 63조로 산출되었다.

가정생산영역별로는 공통적으로 음식준비, 주거 및 주택관리, 이동부문에서 중간소비재 투입 및 자본(내구재) 소모가 많았다. 한편, 가정생산영역별로 중간소비재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중간재소비 중 음식준비 및 정리에 약 16만 7천 원, 53.8%로 지출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월세 평가액 등의 비용이 포함된 주거 및 주택관리가 (11만 9천원, 38.8%) 그 뒤를 따랐다. 상대적으로 의류관리(7천원, 2.3%)와 가족돌보기(2천 9백원, 1.0%)를 위한 중간소비재의 투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소비재 종류별로 살펴보면 식품이 가정생산전체 영역에 투입된 액수는 15만 2천원(49.3%), 임대 및 수도광열비는 10만 3천원 (33.3%)으로 지출이 큰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중간 과정없이 최종소비재로서 생산되는 의류 (0.1%)와 오락 및 문화(0.8%)는 생산을 위한 중

(표 5) 가정생산 영역별 가구당 월평균 자본재/내구재 투입액 측정결과

(단위: 원,%)

구분	음식준비정리	의류관리	주거/주택관리	가족돌봄	이동	합계
가구/가구유지관리	10,146	1,702	18,385	0	0	30,233(64.7)
교통	0	0	0	0	8,471	8,471(18.1)
오락 및 문화	3,476	838	1,804	1,886	0	8,004(17.1)
계	13,622 (29.2)	2,540 (5.4)	20,189 (43.2)	1,886 (4.0)	8,471 (18.1)	46,708 (100.0)
연간 수치	163,463	30,481	242,268	22,628	101,651	560,491
전체 가구(백만원)	2,765,301	515,648	4,098,443	382,790	1,719,632	9,481,814

참조: 가계동향자료 및 생활시간자료 이용, 전체 가구규모 산정시 지표는 추계가구수를 이용함.

간소비재 투입액수는 적었다.

따라서 가정생산을 위한 중간소비재 투입비용은 1가구당 매월 31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 가구의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3조에 이른다. 이중 음식준비 및 정리와 관련한 재료 등 중간소비재지출액수는 약 34조, 주거 및 주택관리 중간소비재지출은 약 24조로 이 두 유형의 가사노동활동에 투입된 중간소비재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산 관련 이동은 약 3조, 의류관리를 위한 중간소비재지출은 약 1조 4295억으로 산출되었다.

3. 가정생산에의 자본재/내구재 투입비용 산출 결과

1) 가정생산에의 자본재/내구재지출 결과

내구재와 자본재는 여러 가사노동활동에 투입된다. 주택이나 자동차는 가정생산의 자본재 개념으로 가전제품, 가구 등은 내구재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재/내구재가 가정생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정생산영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시간비율을 활용하여 할당하였다(앞서의 표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우리나라 가구당 자본재 관련 지출액은 46만7천원이었다. 가정생

산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본재의 성격상 주거 및 주택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43.2%), 음식준비 및 정리 29.2%, 이동부분이 18.1%로 나타났다. 한편, COICOP 분류별 지출 액수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구 가구장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약 3만원, 교통 8천4백 원, 오락 및 문화 8천 원으로 측정되었다. 가구, 가구장비(64.7%)는 주거 및 주택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생산에 순서대로 높은 비중이 투입되었다. 교통관련 자본재는 모두 이동활동에 투입되었고, 오락 및 문화는 이동을 제외한 전 활동영역에 투입되었다.

2) 가정생산에의 자본재/내구재 소모분 산출 결과

가정생산을 위한 자본재(주택, 자동차)와 자본재/내구재의 보수관리 지출 등 내구재의 감가상각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정률법과 정액법으로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주택, 자동차등 자본재와 내구재(가전제품 등)는 가계의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본으로서 가정생산에 사용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자본재/내구재 소모분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자본재/내구재소모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연도별 내구재 보유현황 및 구입시점 정보를 담고 있는 현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표 6〉 자본재/내구재 유형별 월평균 가구당 내구재 소모분 액수

(단위: 원)

COICOP 대분류	항목	내용연수	가격	정률법	정액법
가구, 가구장비 및 유리관리	장롱	9	2,073	468	230
	화장대	8	231	58	29
	침대	9	2,437	550	271
	장식장	8	836	209	104
	소파	8	1,712	428	214
	책상	8	681	170	85
	의자	8	273	68	34
	식탁 및 식탁의자	8	564	141	71
	밥상	7	195	55	28
	조명기구	9	226	51	25
	기타가구	7	1,191	334	170
	중고가구	5	3	1	1
	카펫	5	519	192	104
	기타실내장식품	5	811	299	162
	전기밥솥	9	1,130	255	126
	가스·전자레인지	7	1,131	317	162
	일반냉장고	7	3,980	1,116	569
	김치냉장고	9	3,238	731	360
	정수기	6	618	197	103
	에어컨 및 선풍기	10	2,138	440	214
	난로 및 온풍기	9	177	40	20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9	397	90	44
	세탁기	9	1,581	357	176
	식기세척기	6	49	16	8
	진공청소기	7	978	274	140
	전기다리미	7	121	34	17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7	2,044	573	292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5	53	19	11
	가정용전동공구	7	227	64	32
	설비 관련기구	11	619	117	56
소계			30,233	7,663	3,856
교통	신차구입	9	7,159	1,616	795
	중고차구입	7	1,142	320	163
	오토바이	5	62	23	12
	자전거 등	7	107	30	15
	소계			8,471	1,989
오락 및 문화	정보처리 기기	8	8,004	2,002	1,001
	합계			46,708	11,654

〈표 7〉 가정생산부문의 가구당 월평균 자본재/내구재 소모분 액수

(단위: 원)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주거 및 주택관리	가족 돌보기	이동	합계
정률법 가구,가구장비및유지관리	2,631	391	4,641	0	0	7,663
교통	0	0	0	0	1,989	1,989
오락 및 문화	869	210	451	472	0	2,002
계	3,501	600	5,092	472	1,989	11,654
연간 수치	42,007	7,205	61,103	5,659	23,872	139,847
전체 가구(백만원)	710,636	121,890	1,033,674	95,738	403,842	2,365,779
정액법 가구/가구유지관리	1,327	193	2,337	0	0	3,856
교통	0	0	0	0	986	986
오락 및 문화	435	105	226	236	0	1,001
계	1,761	298	2,562	236	986	5,843
연간 수치	21,133	3,573	30,744	2,828	11,837	70,116
전체 가구(백만원)	357,514	60,439	520,098	47,849	200,248	1,186,147

통계청의 과거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폐지로 내구재보유 및 구매현황에 대한 자료가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한 평균 내구재지출금액과 내용연수를 활용해 감가상각한 뒤 전체 가구 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자본재 또는 내구재 항목별로 가계가 지출한 액수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률법과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정률법과 정액법을 이용하여 자본재/내구재 소모분의 가치를 산정해 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률법으로 자본재/내구재 소모분을 산출한 결과는 정액법의 경우보다 대체로 2배정도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자본재/내구재 소모분을 가정생산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률법의 경우 평균 가구당 1만 1천원 정도를 자본재/내구재 투입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연간 액수는 약 13만 9847원으로 계산되었다. 정액법

을 이용하여 자본재/내구재 소모분을 산정한 결과, 가구당 평균 약 6천원으로 나타났고 연간 약 7만원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총자본재/내구재소모 액수는 약 1조 1861억 정도로 측정되었다. 정액법은 정률법의 경우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액법으로 측정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자본재/내구재 소모 지출액은 약 2조 3657억이었다.

한편, 가정생산 영역별로 중간재와 자본재/내구재 투입을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이 음식준비 및 정리 영역에 대한 중간소비재 투입은 53.8%, 자본(내구재)소모비는 30%이고, 주거 및 주택관리 영역에 대한 중간투입은 38%이나, 자본(내구재) 소모는 43.7%로 상대적으로 투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산 관련 이동에서도 중간소비에 비해 자본(내구재) 소모분 비중이 더 높았다. 한편, 중간소비재투입은 식품 및 비주류, 임료 및 수도광열에서 많았고 가계 자본재 및 내구재 소모는 가구, 가구장비 유지관리, 교통, 오

<표 8> 전체 가구의 가정생산에서의 투입 요소별 연간 가치 산출액

노동(가사노동) 투입	중간소비 투입 (식품, 광열, 임료 등)	가계자본 투입 (가구, 가구장비 등의 정률법 산출)	총투입요소가치 (총투입요소비율)
전문가대체법 203조 (75.6%)	63조 (23.5%)	2.3조 (0.9%)	268조 (100.0%)
기회비용법 290조 (81.6%)			356조 (100.0%)

<표 9> 전체가구의 가정생산 투입산출표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 구분	적용방법	산출액 (생산요소중비율)	국민계정	국민계정 대비 가정생산 비중
생산 요소	노동	총합대체법	202,622,231 (69.7%)	1,678,025,400	12.08 %
		전문가대체법	220,453,463 (75.9%)		13.14 %
		기회비용법	290,211,639 (81.6%)		17.29 %
	중간투입	전문가대체법	63,000,237 (23.5%)		3.75 %
	자본재/내구재	정률법	2,365,779 (0.9%)		0.14 %
		정액법	1,186,147 (0.7%)		0.07 %
부가 가치	자본(내구재)과 노동의 합	정률법+총합대체법	222,819,242	958,836,000	23.24 %
		정률법+전문가대체법	204,988,010		21.38 %
		정률법+기회비용법	292,877,418		30.55 %
		정액법+총합대체법	221,639,610		23.12 %
		정액법+전문가대체법	203,808,378		21.26 %
		정액법+기회비용법	291,697,786		30.42 %
산출물	가정생산물 총액	정률법+총합대체법	285,819,479	2,636,861,400	10.84 %
		정률법+전문가대체법	267,988,247		10.16 %
		정률법+기회비용법	355,877,655		13.50 %
		정액법+총합대체법	284,639,847		10.79 %
		정액법+전문가대체법	266,808,615		10.12 %
		정액법+기회비용법	354,698,023		13.45 %

참조: 국민계정 수치는 한국은행이 제공한 보도자료임.

락 및 문화 등에서 많았다.

4. 가정생산 규모 산출을 위한 가정생산 위성 계정의 투입산출표 결과

가정생산의 투입산출의 결과를 정리·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먼저, 가정생산에 투입

된 노동 요소의 가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투입의 가치 산출액수는 기회비용법으로 측
정할 경우 약 290조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문
가대체법으로 약 220조, 총합대체법의 경우 약
203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산을
위한 중간투입 요소로서 중간소비재 투입 가치는
약 63조로 GDP에 투입된 중간요소 가치의 약

3.7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산을 위한 자본(내구재)재 소모액수는 정률법 기준으로 2.3조로 총투입요소 중 0.9% 임을 알 수 있다.

가정생산의 단계별 투입산출의 결과를 투입산출표로 정리·종합하여 도출하면 <표 9>와 같다. 전문가대체법을 적용한 경우 가정생산 산출물의 가치가 약 268조로 국민계정 대비 10.16%였으며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는 약 356조로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시장생산 대비 13.50%로 조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생산 총산출물의 가치에서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산에서 자본(내구재)과 노동을 합한 투입금액을 살펴보면 대략 204조~325조 정도로 나타났고 이 액수는 GDP 대비 21%~34%정도이다. 최종 결과로서 자본재 소모분까지 포함한 가정생산물의 가치는 266조에서 약 356조 사이로 나타났고 국민계정의 산출액과 비교할 경우 약 10%~15%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생산에의 투입요소 중 자본(내구재)의 가정생산에의 투입액은 약 1조~2조 안팎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생산물에서 가사노동부분의 투입가치는 202조~323조로 나타나 가정생산에서 노동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산에서 노동부분의 비중이 자본재/내구재보다 월등히 큰 투입 요소로서 이 결과를 통해 가정생산이 노동집약적 활동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생산의 규모를 가정생산위성계정 개발을 통해 산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세계 국가들이 가정생산 위성계정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국제간 비교에 적절

한 표준화된 위성계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2009년 가계조사, 임금구조조사로써 가정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대체법을 적용한 경우 가정생산 산출물의 가치가 약 268조로 국민계정 대비 10.16%였으며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는 약 356조로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시장생산 대비 13.50%로 조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생산 산출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노동투입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투입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종합대체법, 기회비용법 등을 적용하였는데 12개 대응직종별 임금을 사용하여 전문가대체법을 활용한 220조로 나타났다. 노동투입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체 가사노동 시간에 일률적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임금을 적용한 종합대체법을 사용하여 가정생산물을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203조가 산출되었고, 기회비용법을 사용하여(중고교 재학생 및 65세 이상 인구 제외) 산출한 결과는 290조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대체법의 활용에서 즉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직업을 선정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정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2개 직종으로 단순화 시킴으로 가사노동의 과대평가 문제를 해소하였다. 가사노동의 대응직종 선정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생산 산출의 편리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기대한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종합대체법을 사용하여 가정생산물의 가치를 산출한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기회비용법을 사용할 경우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 같은 주장은 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다만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가정생산을 총12개 대응직업군을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사

료된다. 권태희(2006)의 연구에서는 기회비용법을 사용한 가사노동의 가치산출 결과와 비교할 때 총합대체법으로 사용할 경우 67.7%, 전문가대체 84.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전문가대체법 결과는 기회비용법 결과의 75.9%로 나타나 권태희(2006) 결과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생산에 투입된 여러 요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사노동 투입의 가치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76에서 82% 사이로 나타나 가정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규모는 전체의 3/4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산활동이 노동집약적인 활동임을 의미한다.

끝으로, 가정생산과정에서 중간소비재의 투입액수는 63조로서 총투입요소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생산 투입요소중 가계자본의 투입액수는 2.3조로 총투입요소액수중 가계자본투입 비중은 0.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계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설명될 수 없었던 비시장가정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단계별로 비용접근법을 통해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산에의 총투입비용중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음식준비 및 조리, 청소 및 정리, 자녀돌보기와 관련된 노동투입비용이 크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산의 주요 담당자인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음식준비, 청소, 자녀돌보기 등의 활동영역에 대한 시장대체가 보편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가정생산 규모의 변화가 예상된다.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늘어날수록, 즉 가사노동의 시장대체가 가속화될수록 가정생산규모가 적게 산출될 것이며 이는 가정생산의 가치평가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생산의 가치를 산출하였는데, 가정생산의 가치산정에 필요

한 임금률, 내구재 지출 및 내구재 보유 관련 특성, 가계의 소비지출 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여러 자료조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간조사에 이들 자료가 포함된 통합된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미 가계지출조사는 매 분기 공표되고 있으므로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5년에 1회 실시하는 시간조사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간사용조사기간을 5년에서 3년 또는 2년으로 짧게 하면 이상적일 것이다. 만약 동일 가계를 대상으로 시간조사와 지출조사를 통합하여 조사할 경우 임금률, 내구재 지출 및 보유 현황 등도 포함시켜 비시장 생산부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한국사정에 적절한 그러면서도 세계의 표준화된 위성계정 개발에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연구 결과를 관련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 국가별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사회대체화 현황,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현황, 가사노동 관련 내구재보급 및 이용현황 등이 차이가 많으므로 이 같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사용, 소비지출, 내구재 관련정보 등 위성계정에서 필요한 기초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수집 및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자본소모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내구재 투입비용 산출을 위하여 내구재 보유현황과 구입년도 등과 관련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권태희(2006).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 정책화 방안,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 3)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85-302.
 - 4) 문숙재(1993). 가정생산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 : 신광출판사.
 - 5) 문숙재 · 성지미 · 정영금 · 윤소영(2001).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부 정책자료집.
 - 6) 문숙재 · 윤소영(2001).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국민계정체계 및 법체계 적용을 중심으로-.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97-194.
 - 7) 문숙재 · 정순희 · 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서울 : 교문사.
 - 8) 여성가족부(2005).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평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보고서.
 - 9) 여성부(2001). 무보수 가사노동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 10) 통계청(1999). 도시가계연보.
 - 11) 통계청(2010). 200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12) 한국은행(2010). 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 13) 허경옥(2003).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개념, 방법론적 논의 및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41(10), 31-44.
 - 14) 허경옥(2004a). 가정생산 위성계정 개발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51-62.
 - 15) 허경옥(2004b). 가정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 한국, 미국, 호주의 가정생산 위성계정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5(4), 17-35.
 - 16) 허경옥(2007).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 17) Douthitt, R. A.(1996). The value if unpaid work in the system of national income accounts: A satellite account approach. *Consumer Interests Annual*, 42, 27-30.
 - 18) Douthitt, R. A.(2003). The invisible economy: Measures of a U.S. Satellite income accountancy and a proposal for refining the measurement of consumer durable good flows. Expert Group Meeting a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eb. 2003.
 - 19) Eisner, R.(1989). *The total incomes system of accoun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0) Eurostat(2003). Proposal for Methodology of Household Satellite Accounts.
 - 21) Fitzgerald, J., Swenson, M. & Wicks, J. (1996). 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at market prices and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2(2), 165-80.
 - 22) Goldschmidt-Clermont, L. & Pagnossin-Aligisakis, E.(1999). Households' non-SNA production: Labor time, value of labour and of product, and contribution to extended private consump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5(4), 519-29.
 - 23) Hirway, I.(2003). Measuring unpaid household production evidences from developing countries, Expert Group Meeting a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eb. 2003.
 - 24) Huh, K.(1997). Determinants of the time allocation in household work of Korean couples, ARAHE: The 9th Conference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 25) Huh, K.(2004). The analysis of counseling site in Korea: Current state of use, consumer satisfaction, and strategies in the development of that site. *日本家政學會誌*,

- 55(9), 693-700.
- 26) Huh, K.(2005). Values of household production in Korea compared to U.S., Australia, Finland, and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6(1), 61-74.
- 27) Huh, K.(2009). Development of Household Satellite Account for Korean Household production, SASE 2009-Capitalism in Crisis SAS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Socio-Economics.
- 28) Ironmonger, D.(1996). Counting outputs, capital inputs and caring labor: estimating gross household product. *Feminist Economics*, 2, 3, 37-64.
- 29) Ironmonger, D.(2000). Household production and the household economy. *Department of Economics Research Paper*, 759.
- 30) Ironmonger, D.(2003).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of the national accounts of household production*. Exprt Group Meeting a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eb. 2003.
- 31) Landefeld, J. S.(2009). Accounting for household production: A prototype satellite account using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55(2), 205-225.
- 32) OECD National Accounts(2000). *Household production in OECD Countries: data sources and measurement methods*.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 33) Varjonen, J., Niemi, I., Hamunen, E., Paakkonen, H., & Sandstrom, T.(1999). Proposal for a satellite account of household prod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OECD Meeting of National Accounts Experts*, 21-24.

- 투 고 일 : 2012년 9월 27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5월 6일